

동아시안컵 17년 만에 우승 도전...여자축구 담금질 시작

벨 감독, 지소연 등 총 23명 소집...첫 훈련서 구슬땀

동아시안컵 여자부 오는 19~26일 일본 가시마서 개최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에서 17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여자 축구대표팀이 담금질에 들어갔다.

폴린 벨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대표팀은 지난 5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총 23명이 입소해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가량 첫 훈련을 소화했다.

지난달 27일 도쿄올림픽에서 여자축구 금메달을 딴 강호 캐나다와 원정 평가전에서 0-0으로 비긴 뒤 28일 귀국한 대표팀은 일주일 만에 다시 모였다.

대표팀은 체력 회복 훈련을 시작으로 트래핑과 패스 등 기본기를 점검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이후엔 팀을 나눠 미니게임을 통해 고강도

압박 훈련을 진행했다.

23명이 모두 훈련을 소화한 가운데 부상에서 회복 중인 미드필더 이민아(현대제철)는 훈련장 구석에서 별도로 재활 훈련했다.

무더운 날씨에도 선수들은 첫날부터 고강도 훈련을 소화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벨 감독과 코치진도 선수들에게 빠른 패스 등 공수 전환에서 속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벨 감독은 지난달 30일 지소연과 해외파 조소현(토트넘), 이영주(마드리드CF) 등이 포함된 24명의 동아시안컵 출전 명단을 발표했다.

유럽에서 뛰는 이금민(브라이튼)의 합류는 무산됐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 해외파 선수들은 소속 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대표팀 관계자는 "소속팀과 대화 중이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격수 문미라(수원FC)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지난 5일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총 23명이 동아시안컵을 위한 첫 담금질에 나선 가운데 대한축구협회는 추가 선수 발탁을 검토 중이다.

이번 동아시안컵 최종 엔트리는 기존 23명에서 26명으로 확대됐다.

2005년 여자부 초대 대회에서 우승 후 동아시안컵 트로피를 들지 못하고 있는 여자대표팀은 17년 만에 대회 정상에 도전한다.

앞서 준우승과 3위, 4위를 각각 두 차례씩 기록했다. 직전 2019년 부산 대회에서도 일본에 이어 준우승했다.

동아시안컵 여자부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가시마에서 펼쳐진다.

개최국 일본과 한국, 중국, 대만 총 4개 팀이



여자축구대표팀 훈련.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풀리기로 우승을 가린다. 한국은 19일 일본과 첫 경기를 치른 뒤 23일 중국, 26일 대만과 차례대로 붙는다.

뉴스

디 잡겠다는 여자축구 지소연 "동아시안컵 우승해야죠"

여자대표팀 6일 소집 훈련...19일 일본과 동아시안컵 첫 경기



한국 여자축구대표팀 에이스 지소연(수원FC)이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안컵) 우승을 위해 일본을 잡겠다고 밝혔다.

폴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지난 5일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입소해 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구슬땀을 흘렸다.

지소연도 선수들과 런닝부터 트래핑, 패스 그리고 미니게임 등을 함께 소화하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무더위 날씨에도 지소연은 어린 후배들을 장난을 치며 훈련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 미니게임에선 에이스다운 빠른 돌놀임을 선보

였다.

지난달 27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여자 도쿄올림픽에서 여자축구 금메달을 딴 강호 캐나다와 0-0 무승부로 자신감을 얻은 여자 대표팀은 다가오는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챔피언십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노린다.

여자 대표팀은 동아시안컵에서 2005년 우승 이후 준우승만 두 차례 차지했다.

훈련 후 취재진과 만난 지소연은 "동아시안컵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간다. (박)은선 언니와는 처음 나가는데 설렌다. 이 대회에서 항상 3위만 했었는데, 저 얻을 때는 2위도 했었다. 이제는 팀이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강호다. 첫 경

기가 일본이라 부담이지만 오히려 잘 됐다. 어느 팀이든 첫 경기가 굉장히 힘들다. 일본도 힘들 것이다. 우승하려면 일본을 잡아야 하는데, 첫 경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동아시안컵 여자부에서 세 차례(2008년, 2010년, 2019년) 우승한 강호다. 지난 2019년 부산 대회에서도 한국은 일본에 져 준우승했다.

이번 동아시안컵 여자부 경기는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일본 가시마에서 펼쳐진다.

개최국 일본과 한국, 중국, 대만 총 4개 팀이 풀리기로 우승을 가린다. 한국은 19일 일본과 첫 경기를 치른 뒤 23일 중국, 26일 대만과 차례대로 붙는다.

지소연은 "일본에 열세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이 여자축구를 훨씬 빨리 시작했다. 축구인도 큰 차이가 난다. 그런데도 아시아에서 준우승한 건 놀라운 결과다. 앞으로 일본과의 전적을 바꾸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8년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5월 한국에 돌아온 지소연은 수원FC 유니폼을 입고 여자 실업축구 WK리그에 입성했다. 하지만 엔트리 등록 문제로 당장 경기엔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다. 지소연은 "경기를 많이 쉬면서 체력과 경기력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오랜만에 동아시안컵에 나서는 만큼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3위를 해봤는데, 최고 성적을 내고 싶다"고 했다.

지소연은 2013년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안컵에 출전해 3위를 한 바 있다. 이후엔 유럽에서 뛰느라 동아시안컵엔 나서지 못했다.

동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 A매치 기간에 열리는 대회가 아니라 소속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지소연은 "헬스에서 뛰는 영국에서 와서 이를 정도 훈련하고 경기에 나왔는데, 지금은 국내에 있다 보니 선수들과 호흡을 맞춘 시간도 충분하고, 시차적응도 수월하다"고 했다.

이어 "조소현(토트넘), 이영주(마드리드CF) 등 해외파들도 빨리 들어와 같이 연습해서 좋다. 이금민(브라이튼)이 소속팀 반대로 합류를 못 했는데, 잘 해결해서 같이 갔으면 한다"고 했다.

뉴스

전남도청 여자 펜싱팀(에베·사브르), 창단 첫 동반 '금빛 찰랑'

제60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 단체전 에베·사브르 동반우승



전남도청 펜싱팀 단체사진(아래 1열 왼쪽부터 박소형, 유단우, 유진실, 김지현, 김시는 선수 2열 왼쪽부터 김향은, 김수민코치, 박다은, 손정빈, 최세빈, 김용울 감독, 전수인선수)

전남도청 펜싱팀이 제60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7일간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에서 전남도청 여자펜싱 에베

팀과 사브르팀이 단체전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더불어 개인전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에베 단체전에 전남도청(유진실, 김향은, 박소형, 유단우)이 출전하여 8강전에서 부산

시청에 45:37로 승리하며 준결승에 진출, 준결승전에서 강원도청에 37:36으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 결승전에서 광주서구청을 만나 44:38으로 승리를 거두며 단체전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이어서 사브르 단체전에서 전남도청(김지현, 박다은, 손정빈, 최세빈)이 출전하여 8강에서 익산시청을 45:31로 꺾고 준결승 진출하여 대전시청에 45:34로 완승을 거두며 결승진출, 결승전에서 안산시청을 만나 45:31로 승리를 거두며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청은 창단 첫 에베 단체전과 사브르 단체전을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한편, 에베 개인전에서 유단우(전남도청)는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용울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에베와 사브르 단체전 동반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 굉장히 기쁘다"며 "전남도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며, 우리 선수들도 그동안의 노력과 굳은 땀방울이 배신하지 않고 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 더욱 더 훈련에 매진해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환기자



박민지, 40년만의 대기록 도전...3번째 타이틀 방어전

'대세' 박민지(24)가 40년만의 대기록에 도전한다.

박민지는 오는 8일 열리는 KPGA투어 14번째 대회인 '대보 하우스디 오픈'(총상금 10억원·우승상금 1억8000만원)에 출격한다.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인 박민지는 한국 여자 프로골프의 전설 고 구옥희 선수가 세운 한 시즌 최다 타이틀 방어 기록을 40년만에 도전하게 된다.

지난해 6승을 올린 박민지는 지난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지난 6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우승하며 2개 대회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지난해 하반기 때 우승 기록이 없는 박민지 예컨 이번 대보 하우스디 오픈이 올 시즌 마지막 타이틀 방어전이 된다.

박민지는 KPGA와의 대회전 인터뷰에서 "마지막 타이틀 방어전이냐 다른 대회들보다 욕심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휴식과 훈련을 통해서 컨디션과 샷 감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는데, 좋은 기억이 있

는 대회인 만큼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회에 임하겠다"며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민지는 지난달 26일 BC카드·한경 레이디스 스킵에서 연장전 끝에 우승한 뒤 한 주 쉬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왔다.

지난해 한 시즌 6승을 달성한 박민지는 4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수를 챙긴 바 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시즌 3승을 수확하며 더욱더 강한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시즌 4승에 도전하는 박민지는 "서원벨리는 핀위치가 까다롭게 맞출 수 있는 골프장이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며 "핀 위치에 따라서 플레이 스타일을 다르게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경기도 파주시 서원밸리컨트리클럽(파72·6741야드)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박민지 외에 2주 연속 우승을 노리는 임진희(24), 시즌 2승에 도전하는 임희정(22)도 출전한다.

뉴스

손흥민의 토트넘과 맞서는 '팀 K리그' 명단, 오늘 공개

'팀 K리그'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트넘과 맞대결

손흥민의 소속팀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와 맞대결에 나서는 '팀 K리그' 선수 명단이 7일 공개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오전 9시 보도자료

를 통해 '팀 K리그' 명단을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이날 낮 12시 K리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팀 K리그 선수 소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팀 K리그' 선수 소개 라이브 방송 진행은 박문성 해설위원이 맡고, 오범석 해설위원과 유튜

버 세력의 축구 전문가 페도가 패널로 나선다.

이날 방송에서는 '팀 K리그' 선수 명단 발표와 함께 선발된 선수들의 전반기 주요 활약상, 경기 관전 포인트 등을 소개한다.

'팀 K리그' 선수단은 K리그1 12개 구단에서 각 2명씩 총 24명이며, 각 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추천 명단을 바탕으로 '팀 K리그' 김상식 감독과 김도균 코치, 연맹 기술위원회가 협의해 선정한다.